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임 수 진[†] 오 수 성 한 규 석

전남대학교 다문화사회구현특성화사업단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184명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을 측정하였고,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주여성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일본 출신이었다. 이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는 우울 2.6%와 불안 3.3%이었다. 가능한 예측변인으로는 출신지역, 이주시 연령, 거주기간, 학력, 남편과의 나이차이 등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남편만족도, 사회적 지지의 심리적 변인을 사용하였다. 중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만족도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였으며,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에는 남편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남편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불안은 감소하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은 증가하였다.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거주지역, 직업유무, 월수입에 따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출신민족에 따라 불안에서 차이를 보였다. 필리핀 여성인 경우 베트남, 일본, 몽골 이주여성에 비해 높은 불안을 경험하였다.

주요어 : 국제결혼 이주여성, 불안, 우울, 남편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주의

* 본 논문은 전남대학교 다문화사회구현특성화 사업단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 교신저자 : 임수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시간강사,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Tel : 062-530-2650, E-mail : sjlim429@hanmail.net

우리사회의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는 다문화주의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유학생의 증가, 여행자들의 증가,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 여기에 탈북자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10년 사이에 다문화를 주제로 304건의 연구가 보고 되었지만, 작년 한해에만 361건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한국 교육 학술정보원, 2009).

이주민 중에서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 되었으며 2007년에 10만을 넘어 2008년에는 127,683명으로 보고되고 있다(다문화 가족관련 통계, 2009). 이러한 급격한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생의 어머니로서의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추가된 것이다.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결혼과정이나 경제적 실태 등의 복지관련 주제와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 갈등 및 폭력 등 그들이 한국사회에 이주하게 된 배경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왔다(구차순, 2007; 고은주, 2008; 김오남, 2005; 박은진, 2007; 양옥경·김연수, 2007; 최혜지,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풍습이 다른 살림살이,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 남녀 불평등, 시대문화, 자녀문

제, 소외감 등의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구차순, 2007; 고은주, 2008; 박은진, 2007; 보건복지부, 2006). 이러한 적응에의 어려움들은 그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적응에의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응의 어려움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적응이라는 개념(Berry, 1997)은 초기에는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하여 두 집단의 변화 모두를 의미하였으나, 이주여성은 적응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생각, 정서, 행동을 한국사회에 적절하게 변화시켜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개인과 상황의 특성에 의해 매개되며, 최종적으로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정진경·양계민, 2004). 결과적으로 문화적응의 스트레스가 자신의 자원과 대처능력을 초과할 때 개인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양옥경·김연수, 2007; Hovey & Magana, 2002).

이민자들은 본국의 친구와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상실감을 경험하고 대처자원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낮은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실직이나 낮은 수입과 관련된 좌절, 주류사회에 소속되지 못한 느낌, 낮은 환경에 대한 잘못된 반응에 대한 불안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문제의 출현을 이끄는 것이다(Hovey & Magana, 2002).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2005)가 전국 1,082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심리적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5.3%, ‘불안’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5.0%로 본래 일반인들이 보이는 5% 정도의 유병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민자들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이주시 연령, 거주기간, 직업유무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이 연구되어 왔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과 관련해서는 이주 여성이 이주 남성보다는 우울하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Hiott, Grzywacz, Arcury, & Quandt, 2006; Roberts & Roberts, 1982; Salgado de Snyder, 1987). 이러한 성차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울증 자체가 여성에게 더 빈번하게 경험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이주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우울하였다(Vega, Warheit, Buhl-Auth & Meinhardt, 1984) 하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기와 노년기의 발달 스트레스와 중첩되어 이 시기에 더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Sumer, Poyrazli와 Grahame(2008)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불안이 증가하였다. 이주여성의 심리적 건강과 학력의 연구에서는 낮은 학력과 성취가 우울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Vega, Warheit, Buhl-Auth & Meinhardt, 1984).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정희 · 유영주, 1999)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민족과 관련해서는 두 문화 간의 차이가 클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 Clum, 1994).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그 문화권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거주기간과 주류문화의 언어 유창성은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언어실력이 향상 되었으며 이러한 거주기간의 증가와 언어실력의 향상은 이주민들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Salgado de Snyder, 1987;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Vega, Warheit, Buhl-Auth와 Meinhardt(1984)의 연구에서도 미국에 이주한 라틴계 중에서 영어보다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더 우울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자국과 문화차이가 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고 언어 유창성이 떨어질수록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민의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신체화 등의 심리적인 이상 행동들이 증가하였다(양옥경 · 김연수, 2007; Hovey, 2000; Hovey & King, 1996; Salgado de Snyder, 1987)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건강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주연, 2008; Hovey, 2000; Hovey & King, 1996; Sumer, Poyrazli, Grahame, 2008).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이주민의 우울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지 못하는 연구결과도 있다(양옥경 · 김연수, 2007; Salgado de Snyder, 1987). 이주민에게 특히 의미 있는 지지는 남편의 지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과 가족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느꼈을 때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이 감소하였다(양옥경 · 송

민경·임세와, 2009; 정주연 2008; Hovey & King, 1996; Salgado de Snyder, 1987). 심리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심리적인 건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이들의 복지지원과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204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하였다. 204명의 대상자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184명의 결과가 기술되었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 제시 되어있는 것과 같이 출신국은 몽골이 10명, 베트남이 46명, 필리핀이 44명, 중국이 30명, 일본이 54명이었다. 거주 지역은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142명이었고 전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42명이었다. 학력은 무학이 4명, 초등학교 졸업이 12명, 중학교 졸업이 28명, 고등학교 졸업이 68명, 대학졸업이 66명이었으며 대학원 이상이 5명 있었다.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6명이었고 가구 월수입

은 100만원 이하부터 400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 하였다. 수입을 모르는 이주여성도 71명이나 되었다. 거주기간은 평균 70.8개월로 약 5년 10개월이었다. 1년에서 3년 사이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균나이는 32.81세였고, 남편의 평균나이는 42.66세였다.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는 평균 9.9세였다.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1이었고 불만이 18명, 보통이 64명, 만족스러운 경우가 102명으로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설문구성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우울척도, 불안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척도,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은 4가지의 척도 외에 연령, 거주기간, 학력, 가구 월수입, 거주지역, 직업유무, 출신국가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지는 모두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영어강사, 일본어강사, 중국박사과정생, 베트남 유학생에게 의뢰하여 번역하였으며, 이를 다시 대학생들이 설문문항을 확인하고 문맥을 다듬었다. 한국어 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안하여 한국어판과 함께 조사에 사용하였다.

우울척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간이 정신 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 revision SCL-90-R)’에서 우울에 해당하는 문항 13개를 사용하였다. SCL-90-R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혀 우울하지 않으면 0점 심하면 3점을

표 1.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통계

	항 목	빈도(%)		항 목	빈도(%)
출신국	몽골	10(5.4)	거주기간	1년 미만	38(20.7)
	베트남	46(25.0)		1-3년	57(31.0)
	필리핀	44(23.0)		3-7년	25(13.6)
	중국	30(16.3)		7-10년	20(10.9)
	일본	54(29.3)		10년 이상	39(21.2)
거주지역	광주	142(77.2)	직업유무	있다	46(25.0)
	전남	42(22.8)		없다	136(73.9)
학력	무학	4(2.2)	가구 월수입	100만원 미만	26(14.1)
	초졸	12(6.5)		100-200	54(29.3)
	중졸	28(15.2)		200-300	21(11.4)
	고졸	68(37.0)		300-400	8(4.3)
	대졸	66(35.8)		400만원 이상	3(1.6)
	대학원졸 이상	5(2.7)		모름	71(38.6)
연령대	20세 이하	7(3.8)	남편과 나이차이	연하	21(11.4)
	21-30	78(42.4)		5살	39(21.2)
	31-40	50(27.2)		5-10	38(20.7)
	41-50	43(23.4)		10-15	35(19.0)
	50이상	4(2.2)		15-20	28(15.2)
			20살 이상	17(9.2)	

선택하게 된다.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87이었다.

불안척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간이 정신 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 revision SCL-90-R)’에서 불안에 해당하는 문항 10개를 사용하였다. SCL-90-R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87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박은진(2007)이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사용하였다. 한국사회의 적응에 대한 질문 총 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1점 스트레스가 많으면 5점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95이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

Zimmet & Dahlem, Zimmet, Farley(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를 사용하

였다. 임수진(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에 대해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9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 수는 .847이었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8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주로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인근의 담양, 장성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이주여성 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교회 내 문화센터, 동사무소 등 다양한 곳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이들의 소개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생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개별면접을 하거나 이주여성의 한글교사들에게 의뢰하여 설문이 진행되었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어판 설문을 주었으며 이주여성들에게는 모국어로 된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우울과 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 석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15.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우울과 불안의 집단 간 차이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 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거주기간, 거 주지역, 직업유무, 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우울 과 불안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출신국에 따 라 우울의 평균은 몽골 6.8, 베트남 7.26, 필리 핀 10.13, 중국 9.40, 일본 9.59로 집단간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불안 은 몽골 1.7, 베트남 3.23, 필리핀 7.11, 중국 4.96, 일본 2.62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F(4, 179) = 5.455, p < .001$. 사후검증 (scheffe)을 통해 필리핀 여성이 몽골, 베트남, 일본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 험하고 있었다. 거주기간 별 우울과 불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두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거주지역, 직업 유무, 월수입도 역시 우울과 불안에서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과 불안이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먼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과 불안의 평균을 살펴보면 8.95과 4.18로 나타났으며, 국 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우울 점수를 표준점수인 T점으로 환산하면 50점 이상이 19.6%이며 70 점 이상은 2.6%이다. 불안 점수도 표준점수 T 점수로 환산하면 50점 이상이 16.8%이며 70점 이상은 3.3%였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다른 변수 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주시 나이와 문화

표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거주기간, 거주지역, 직업유무, 가구 월수입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N	우 울			불 안			
		M	SD	F	M	SD	F	
출신국	몽골 ^a	10	6.8	9.05	.857	1.70	4.69	5.455*** a<b
	베트남 ^a	46	7.26	7.16		3.23	5.27	
	필리핀 ^b	44	10.13	8.87		7.11	7.35	
	중국 ^{a, b}	30	9.40	7.25		4.96	5.67	
	일본 ^a	54	9.59	7.83		2.62	2.92	
거주기간	1년 미만	38	7.44	7.08	1.917	3.71	5.87	2.033
	1-3년	57	7.61	7.50		3.63	5.58	
	3-7년	25	11.76	8.33		6.80	6.97	
	7-10년	20	10.30	4.54		4.80	3.79	
	10년 이상	39	9.89	8.94		3.12	3.88	
거주지역	광 주	142	8.90	7.94		4.04	5.43	
	전 남	42	8.97	7.93		4.66	6.27	
직업유무	있 다	46	10.50	7.35	2.284	5.47	6.70	3.039
	없 다	136	8.46	8.07		3.79	5.22	
가구 월수입	100만원 미만	26	10.88	7.73	1.880	5.88	6.56	1.285
	100-200	54	10.31	8.59		3.93	5.13	
	200-300	21	9.67	8.71		4.71	5.34	
	300 이상	11	5.36	2.80		1.54	1.51	
	모 름	71	7.69	7.50		4.07	6.03	

*** $p < .001$

적응 스트레스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267, p < .01$). 남편과의 나이 차이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이에는 부적 상관($r = -.258, p < .01$)을 보였으며, 남편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역시 부적 상관($r = -.271, p < .01$)을 보였다. 이주여성의 우울은 남편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r = -.399, p < .01$) 보였다. 하지만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r = .405, p < .01$). 우울과 불안 역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721, p < .01$). 이주여성의 불안도 역시 남편만족도와 부적상관을($r = -.308, p < .0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r = .251, p < .01$).

회귀분석에서 상관이 높은 변수들 간에 존재

표 3. 각 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이주시 연령	거주 기간	학력	나이 차이	남편 만족도	사회적 지지	문화 적응	우울	불안
이주시연령	-								
거주기간	.171*	-							
학력	.264***	.404***	-						
나이차이	-.595***	-.636***	-.518***	-					
남편만족도	.024	-.207**	.024	.142	-				
사회적지지	.039	.005	.122	-.071	.144	-			
문화적응 스트레스	.267***	.062	.077	-.258**	-.271***	.108	-		
우울	.057	.124	.091	-.112	-.399***	-.088	.405***	-	
불안	-.010	-.024	.042	.041	-.308***	-.103	.251**	.721***	-
평균 (표준편차)	32.81 (9.23)	70.65 (73.52)	4.19 (1.21)	9.91 (7.51)	3.61 (.986)	23.95 (5.91)	12.50 (4.60)	8.95 (7.92)	4.18 (5.62)

*** p<.001, ** p<.01, * p<.05

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증가 요인이 모두 10을 넘지 않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우울에 미치는 변수

들을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인 이주시 연령, 거주기간, 학력, 남편과의 나이차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심리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 역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 4. 국제결혼 이주여성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	SE B	β	t	R ²	F
이주시 연령	-.006	.112	-.004	-.051		
거주기간	.008	.010	.071	.788		
학력	.770	.494	.121	1.560		
남편과 나이차이	.154	.119	.146	1.296	.292	9.801***
문화적응스트레스	.613	.124	.359	4.939**		
사회적지지	-.102	.089	-.307	-1.145		
남편만족도	-2.472	.580	-.077	-4.258**		

p<.01, * p<.001

표 5. 국제결혼 이주여성 불안의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	SE B	β	t	R ²	F
이주시 연령	-.018	.083	-.020	-.218		
거주기간	-.002	.007	-.028	.292		
학 력	.661	.368	.151	1.798		
남편과 나이차이	.137	.088	.189	1.552	.169	4.832***
문화적응스트레스	.265	.093	.226	2.867**		
사회적지지	-.069	.066	-.077	-1.051		
남편만족도	-1.523	.433	-.275	-3.519**		

** $p < .01$, *** $p < .001$

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만족도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우울도 증가하는 ($\beta = .359, p < .05$)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만족도는 감소할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것으로($\beta = -.077, p < .01$) 나타났다.

개인적인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중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불안에 미치는 예언변인들 중 개인적 특성인 이주시 연령, 거주기간, 학력, 남편과의 나이차이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 역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만족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불안은 증가($\beta = .226, p < .01$)하였으며, 남편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불안은 유의미하게 감소($\beta = -.275, p < .001$)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은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만족도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았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우울과 불안에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이주시 연령, 거주기간, 학력, 남편과의 나이 차이와 심리적 특성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남편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출신국가, 직업유무, 가구월수입, 거주 지역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심각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이 각각 2.6%와 3.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5)에서 보여준 우울 5.3%와 불안 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윤황(2009) 연구에서 보여준 이주여성 중 도시거주자가 농촌거주자보다 우울하지 않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주여성의 대부분이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지원 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관등 사회

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이주 여성들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지지체계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잘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주여성의 우울은 증가하였다(양옥경 · 김연수, 2007; Hovey, 2000; Hovey & Magana, 2000). 이주여성들은 출신국을 떠나 한국사회에 이주해 오면서부터 결혼으로 인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문화적인 충격과 이질감,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어 한국문화에의 적응이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남편만족도로 나타났는데,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선행연구 보고(양옥경 · 송민경 · 임세와, 2009; 정주연 2008; Hovey & King, 1996; Salgado de Snyder, 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추가분석결과 문화적응에는 남편만족도($\beta = -.325, p < .001$)와 남편과의 나이차이($\beta = -.243, p < .05$)가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편이 자신에게 지지적이고 남편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문화적응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만족도와 기혼여성의 우울은 이주여성과 일반여성(배성운 · 오경자, 2000)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정주연 2008; Sumer, Poyrazli, & Grahame, 2008)에서 거주기간의 증가는 이주여성의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

지 않았다. 양옥경 등(2009)의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적인 측면의 거주기간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학력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낮은 학력을 보이는 이주민들이 더 많은 우울을 보고한 Vega, Warheit, Buhl-Auth와 Meinhardt(1984)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고졸과 대졸이 대부분으로 변인이 낮아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시 연령도 우울에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주기간이 오래된 여성들에게 이주 당시의 우울이 아니라 현재의 우울을 측정하여 상관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남편만족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역시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남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에 대한 만족감은 이주여성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었다. 정주연(2008)의 연구에서도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암치료를 받는 여성들의 불안을 남편의 지지가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연구(이인숙, 2003)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주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감소하였다. 여성들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남편의 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도 증가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Hovey & Magana, 2002).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낮은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적응은 이

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출신민족별 차이분석에서 우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불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몽골, 베트남, 일본여성에 비해 필리핀여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는 한국문화와의 문화적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필리핀을 제외한 중국, 일본, 베트남은 한자문화권이라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필리핀은 오랜 기간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였으며 모계사회의 특징을 많이 드러내는 등 한국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이주여성들의 불안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Yang과 Clum(1994)의 문화적 유사성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우울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과 이주시 연령, 학력은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과 나이 차이는 우울과 불안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적은 나이 차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있고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일종의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완충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Hovey, 2000; Hovey & King, 1996; Sumer, Poyrazli, Grahame, 2008)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양옥경 · 김연수,

2007)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로 외국연구에서는 가족이 이주하거나 개인이 이주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결혼을 통한 이주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은 무엇보다 남편의 지지와 만족도가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갈등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었다(김오남, 2006).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현장에서 그들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 만족도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한 한국사회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절실한 것은 이주여성들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이들이 소외되고 배척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들에게 부인의 나라에 대해 교육하고, 문화차이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편의 부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줄 뿐 아니라 남편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논의에서 다루어진 대로 지역적인 한계와 더불어 대도시지역과 인근에 거주하고 다양한 다문화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우울과 불안이 전체 이주여성들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

역의 이주여성과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르고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주여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출신지역을 좀더 구체화하여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 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복지학*, 8, 119~360.
- 고은주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정폭력,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감,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 · 김재환 · 원호택 (2003).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중앙적성출판부.
- 다문화 가족관련 통계 (2009).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박은진 (2007). 국제결혼 이후 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 유영주 (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가족관계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91-119.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배성운 · 오경자 (2000). 가족의 지지 및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157-171.
- 양옥경 ·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양옥경 · 송민경 ·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윤 황 (2009).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도시-농촌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2003). 부인암 치료를 받은 기혼 여성들의 우울, 불안, 배우자 지지. *한국 보건간호학회지*, 17(1) 58-68.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관계와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228-262.
- 정진경 ·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http://www.riss4u.net>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Hiott A., Grzywacz J. G., Arcury T. A., & Quandt S. A. (2006). *Families Systems, & Health*, 24(2), 137~146.

-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Mexic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6(2), 134~151.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183~1192.
- Hovey, J. D., & Magana C. G. (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 119~131.
- Hovey, J. D., & Magana C. G. (2002).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xiety Among Immigrant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3), 274~289.
- Roberts, R. F., & Roberts, C. R. (1982). Marriage,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exican American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4, 199~221.
- Salgado de Snyder, V. N.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 475~488.
- Sumer, S. Poyrazli, S., & Grahame, K.(200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 42-437.
- Vega, W. A., Warheit, G., Buhl-Auth, J., & Meinhardt, K. (1984).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Mexican Americans and Anglo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0, 592~607.
- Yang, B., & Clum, G. A. (1994).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skills predictive of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n Asian student population: Atest of a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 127-135.
- Zimmet. G. D., N. W. Dahlem, S. G. Zimmet and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 1 차원고접수 : 2009. 11. 6.
심사통과접수 : 2009. 12. 9.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Sujin Lim

Center for Multicultural Socie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osung Oh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yuseog Han

Multiculturalism becomes the salient issu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The survey had been carried out for 184 foreign wives. These wives were those who came from China, Vietnam, Philippines, Mongolia, Japan. The total amount of depression was 2.6%, and anxiety was 3.3%. The potential predictive variables were the followings; age, length of stay, race/ethnicity, difference in husband age, satisfaction with husb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were satisfaction with husband and acculturative stress. The more they were satisfied about their husband the less they were depressed. The more they had acculturative stress the more they were depressed.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anxiety were satisfaction with husband, acculturative stress, race/ethnicity, and length of stay. The more they were satisfied about husband, the lower their anxiety level was. The more they got acculturative stress, the higher their anxiety level was. The results showed that foreign wives had not significant difference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residence religion, occupation, family income.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anxiety among ethnic. Philippines wives had higher anxiety level than Vietnam, Mongolia, and Japan wives.

Key words :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depression, anxiety, satisfaction of husband, Acculturative stress, multiculturalism